

유아의 성, 연령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Gender, Age, Temperament,
Mothers' Emotionality, and Emotional Development*

광양보건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안라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김희진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wang Yang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An Rari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Kim Heej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in children ages three to fiv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 the children such as gender, age, and temperament, as well as their mothers' emotionality, in relation to emotional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included a total of 72 children between three and five years of ag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between the boys and the girls. Additionally, the emotional recognition of the children increased as age increased, and more positive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were used with the increasing age of the children. Temperament characteristics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emotional expression or emotional recognition, while the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were related to th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Second, the emotional expressivity of the mother was related to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recognition of the child, but was not associated with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The emotional reactivity of the mother was related to a child's 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but

Corresponding Author : Rari A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 Yang Health College of Korea. 223-1 DeokRae-Ri GwangYang-Eup, Si Jeonnam-Do, Korea Tel: +82-61-760-1427 Fax: +82-61-763-9009 E-mail: rarian@hanmail.net

* 이 논문은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not to emotional expression or recognition. Thir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children was influenced by the individual child variables and emotionality of the mother.

주제어(Key Words):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 정서인식(emotional recognition), 정서조절전략(strategies for emotional regulation)

I. 서 론

인간의 정서 발달은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 정서 발달의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영향 받지만(Fox & Davidson, 1988), 사회·문화적 영향력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임이 밝혀지면서, 1980년대 들어서 정서 사회화(emotion socialization) 관점과 정서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함께 강조되었다. 이 두 관점은 정서를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시도로 정의하고 있다(Saarni, Mumme, & Campos, 1998).

정서는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지만 학자(Ashiabi, 2000; Bonello, 1998; Lindsey & Colwell, 2003)들은 공통적으로 유아기의 정서 발달의 구성요소로 정서의 표현,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유아기는 정서 발달의 초기 단계로서,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정서 발달을 돋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유아 개인 변인으로는 성, 연령, 기질 등이 언급되어져 왔고, 유아의 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모 역할 변인으로는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이 최근 중시 되었다(Isley, O'Neil, & Parke, 1996).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 중,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아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호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아 개인 변인과 유아의 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발달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이지은, 1996; 이해현, 최보가, 2002; 황선희, 2003; Gnepp & Hess, 1986; Lindsey & Colwell, 2003)는 남녀아 간에 정서 표현 및 인식, 조절 전략이 차이 없음을 보고하였지만, 다른 연구(신혜정, 2000; 조은진, 1997; Casey, 1993;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들은 여아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정서 인식 수준도 높으며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아기 정서 발달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생득적 이유도 있지만 여아와 남아가 접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반응 경험의 차이로 지적된다(Saarni, 1989a). 그러나, 성에 따른 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정서 인식 수준이 높고 조절 전략이 다양한 유아들이 또래에 의해 더욱 선호된다 는 것(Cassidy, Park, Butkoysky, & Braungrat, 1992)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과 유아의 정서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만 3~5세가 유아의 정서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는 매우 제한된 연구만 이루어졌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은 감소하거나 온건한 표현으로 변화되며 긍정적 정서 표현이 많아진다(김지현, 이순형, 2004; Roberts & Strayer, 1996). 또한, 만 5세 이전에도 기본적인 정서 인식은 가능하지만, 만 2~4세 유아들은 부정적 정서 구분에서 혼동을 보였고(Denham & Couchoud, 1990ab), 만 5세가 되어서야 부정적 정서의 정확한 구분이 가능함을 보고한 연구 결과(조은진, 1997)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연령과 정서 조절과의 관계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황선희(2003)는 만 4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가 문제중심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강기숙, 이경님(2001)은 만 3, 4, 5세 유아간의 정서 조절 행동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연령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과 강도가 변화하는 이유는 연령 증가와 함께 정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하고(Fabes, Eisenberg, Carbon, Carlo, Schaller, & Miller, 1991), 언어적 정서 표현능력의 증가 때문으로 설명되기도 하며(Dune & Brown, 1994), 정서 표현을 감출 수 있는 능력과 조절전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Harris & Gross, 1988). 하지만 연령별 정서 표현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만 3세와 5세 유아의 갈등 상황에서의 정서 표현이 차이가 있었음을 밝힌 연구(김지현, 이순형, 2004) 정도가 있을 뿐이다. 또한 유아의 정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서현아, 김소연, 2002), 만 3~5세 유아의 정서 인식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제시된다면 유아를 위한 교육 내용에 반영할 수 있고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효율적으로 개입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기질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몇몇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다. Hestense, Kontos와 Bryan(1993)은 기질이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정서 표현 행동 및 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밝혔

지만, 양연숙, 조복희(2001)는 기질과 양육의 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서 표현이 결정된다고 했다. 유아의 정서 인식과 일부 기질적 특성이 관련 있음도 밝혀졌는데, 우수경(2002)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정서 지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고, 김민화,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2003)은 영아의 기질 중 불편함을 호소하고 긍정적인 예견을 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정서 단어를 더 잘 이해한다는 했다. 유아의 기질과 정서 조절의 관계에 대해 곽혜경, 조복희(1999)는 어머니의 통제책략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유혹저항이나 순응에 대한 정서 조절이 간접적 영향을 받음을 밝혔고, 황선희(2003)와 박성연(1998)은 순한 기질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유아의 기질과 정서 발달의 관계성은 기질 특성 중에서도 주로 정서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기질 특성과 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유아의 정서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혜련, 최보가, 2002; 한유미, 손경화, 2004; 한유진, 유안진, 1998;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Denham 등(1997)은 부모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유아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반응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이는 다른 연구들(한유미, 손경화, 2004; 한유진, 유안진, 1998)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정서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되게 제시되어 있다. 여러 연구(우수경, 2002; Crockenberg, 1985; Denham, Zoller, & Couchoud, 1994)에서 부모가 자유롭게 넓은 범위의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는 상황에 적합한 정서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격렬하게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할 때 정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Halberstadt(1986)의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성이 낮은 가정에서 성장한 개인이 정서 표현에 있어서는 더 소극적이었지만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한 인식을 민감하게 발달시키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정서 인식에 있어서는 더 기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정서 조절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온정적·수용적이고 민감할 때 유아의 정서 조절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강기숙, 이경님, 2001; 박성은, 박성연, 2001; 이혜련, 최보가, 2002).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유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 표현은 정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유아의 정서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로 어머니의 긍정적 정

서 표현성 및 애정적 양육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 반응성은 상호 교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의 정서 표현 또는 유아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유아의 정서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정서 표현과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다.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하도록 규제할수록 아동은 내적인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된 정서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서 반응을 결정하는 정서 표현 규칙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한유진, 유안진, 1998),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아기의 정서 표현과의 관련성을 본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정서 인식에 대해서 일부 연구(이지선, 정옥분, 2002; 이현민, 1998; Eisenberg & Fabes, 1994; Hyson, 1994; Roberts & Strayer, 1996)는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한다고 하였지만, 이혜련, 최보가(2002)는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허용적일수록 유아의 정서 조망 수용능력이 낮았고 이는 성인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과 유아의 정서 인식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이 일관성 있게 수용적일수록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정, 2000; 이지선, 정옥분, 2002; 이현민,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 발달은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몇몇 변인들과 유아의 정서 발달과의 관련성을 밝히거나, 정서 발달 측면 중에서도 정서 표현, 인식, 조절 전략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아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아의 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서 능력, 정서 지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정서 능력과 정서 지능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정서 발달의 세 측면의 내용을 몇 개의 문항으로만 측정하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찰 및 면접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만 3, 4, 5세 유아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서 연령적 발달 경향성을 포괄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적 특성도 전반적인 정서

발달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정서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화의 주요한 담당자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도 일반적인 양육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으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반응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상호 관련되어 있는 두 측면과 유아의 정서 발달과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만 3, 4, 5세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기 정서 발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사 및 부모에게 정서 발달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적절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개인 변인과 유아의 정서 발달은 관계가 있는가?
 - 1-1.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정서 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 1-2.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서 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 1-3.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정서 발달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S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아파트 단지 내 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 4, 5세 유아 72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3, 4, 5세 유아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는 이 연령의 유아에게서 정서 표현과 인식 및 조절 전략의 변화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Saarni et al., 1998) 이 시기에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 발달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함이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천희영(1992)의 유아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 유아의 기질을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유아의 어머니이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천희영(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

해 Halberstadt(1986)의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FE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 질(긍정적-부정적 정서)과 강도(강한-약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강한 긍정, 약한 긍정, 강한 부정, 약한 부정의 네 하위 영역별로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6점 척도이다. 그러나 표현의 강도에 관계없이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끼리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강도를 나누기 보다는 긍정성, 부정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긍정적 정서 표현성과 부정적 정서 표현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alberstadt(198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5에서 .88사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정서 표현 신뢰도는 Cronbach's α .81, 긍정적 정서 표현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었다.

3)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

가정에서 유아의 가설적인 정서 표현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Saarni(1989b)의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PAC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 사이이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엄격하고 통제적인 반응을, 점수가 낮을수록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반응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의 문항은 노여움, 슬픔, 두려움, 걱정, 호기심, 행복, 혐오 사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10문항과 자신의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 10문항을 묘사하고 있다. Saarni(1989b)가 보고한 PACES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68 이었다.

4) 유아의 정서 표현

유아의 정서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 Hubbard(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Hubbard(2001)는 두 명의 또래가 판 게임을 하는 동안 또래 쌍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기쁨, 슬픔, 분노, 정서 표현을 얼굴표정, 억양, 비언어적 행동으로 범주화하여 관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나타난 유아의 정서 표현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표정/무행동 등을 기타 분석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유아의 정서 표현을 관찰하기 위해 자유놀이 시간 동안 무작위로 순서를 정하여 한 유아 당 10초씩 캠코더로 녹화하고 10초간 다음 유아를 찾는 방식으로 총 70회씩 유아의 정서 표현을 코딩하였다.

5) 유아의 정서 인식

유아의 정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Denham과 Couchoud(1990ab)의 면접 도구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궁정적 정서로 기쁨을 부정적 정서로 슬픔, 분노, 두려움 정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의 정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면접을 실시할 때 원 도구에서는 손인형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 상황 그림카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면접 시 정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A4용지 크기의 그림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면접에서는 정서표현 명명하기, 정서표현 지적하기, 정서상황 해석하기, 정서 조망수용 능력 각각의 면접 내용에 대해 옮겨 답하면 2점, 동일한 유형의 정서를 답하면 1점, 틀리게 답하면 0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합산하여 정서 인식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점수 범위는 정서 표현 명명하기 0~8점, 정서 표현 지적하기 0~8점, 정서 상황 해석하기 0~16점, 정서 조망수용능력 0~24점으로 정서 인식 총점의 범위는 위의 네 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0~56점 범위였다. 정서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6)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Creasey, Ottlinger, DeVico, Murray, Harvey와 McInnis(1997)의 정서 조절전략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Causey와 Dubow(1992)의 분석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을 분석하였다. Creasey et al., (1997)의 도구는 부모와 또래가 등장하는 행복, 슬픔, 분노의 간단한 이야기 9가지를 듣고 이에 대한 조절 전략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려움을 첨가하여 동성 또래와 이성 또래, 교사, 부모가 대상으로 제시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정서를 유발하는 그림 카드를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두려움을 첨가한 이유는 두려움은 유아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이고(Salovey & Sluyter, 1997),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정서 인식 내용 역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네 가지 기본 정서들을 측정하였으므로 이들과 측정 내용에서 동일 측면을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아의 대답은 Causey와 Dubow(1992)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사회적 지원 요청, 문제해결, 회피, 내면화 반응, 외면화 반응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가 선택하는 정서 조절전략을 범주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시에는 Roth와 Cohen(1986)의 접근-회피의 이원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원 요청과 문제해결은 궁정적 정서 조절전략으로 회

피, 내면화 반응, 외면화 반응은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으로 합산하여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을 알아보았고 점수 범위는 1~24점 사이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예비 연구는 전라남도 S시에 위치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아파트 단지 내 사립 유치원 한 곳에서 15일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어머니 설문지 총 30부를 배포한 후, 수거된 27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 및 관찰 기간 중 결석한 유아를 제외하고 남아 11명과 여아 10명을 최종 예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모 설문지를 보낼 때에는 하원 시간을 이용하여 서류봉투에 설문지와 함께 유아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유아의 정서 표현 관찰은 오전 및 오후 자유선택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캠코더로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유아의 정서 인식과 정서 조절전략에 대한 면접은 자유선택 활동 시간을 제외한 유치원 일과 시간을 이용하여 오전과 오후 시간 모두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역시 전라남도 S시에 위치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아파트 단지 내 사립 유치원 두 곳에서 두 달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두 유치원에서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유사한 각 연령별 1학급씩을 선정하여 부모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고, 교사 설문지, 유아 관찰과 면접은 예비연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평정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t 검증, F 검증(사후 검사로 Scheffe 검증), Pearson's correlation 및 단계적 방식(stepwise)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개인 변인과 유아의 정서 발달

1)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발달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발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표 1〉), 남아와 여아 간에 기쁨, 슬픔, 분노를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차이가 없었지만 기쁨과 분노를 억양 및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빈번했다. 정서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정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조절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발달

M(SD)

유아의 정서발달		유아의 성	남아(n=36)	여아(n=36)	t
정서표현	기쁨	얼굴 표정 억양 비언어적 행동	28.23(10.53) 7.60(3.94) 13.93(7.19)	33.67(12.82) 4.82(4.44) 7.82(5.97)	-1.84 2.63* 3.69***
		슬픔	.70(1.58) .13(.43)	.97(1.43) .24(.61)	-.71 -.81
		분노	.20(.55) 2.40(2.33) 5.30(4.22) 2.00(2.52)	.45(1.20) 2.18(3.09) 2.94(3.64) .79(1.95)	-1.10 .31 2.38* 2.15*
	정서인식	정서 표현 명명하기 정서 표현 지적하기 정서 상황 해석하기 정서 조망 수용능력	6.56(1.93) 7.25(.97) 11.53(3.19) 14.03(5.54)	7.00(1.12) 7.53(1.03) 12.83(1.89) 15.67(4.90)	-1.19 -1.18 -2.11* -1.32
		정서 인식 합계	39.36(8.58)	42.03(6.52)	-2.04*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	15.00(5.68) 5.72(3.84)	15.86(5.07) 6.17(3.69)	-.68 -.50

*p<.05 ***p<.001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 발달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 발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표 2〉), 기쁨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3세 보다 4세와 5세가 빈번히 표현하고, 비언어적 행동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3세와 4세가 5세 보다 빈번하며, 분노를 억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3세와 4세 보다 5세가 빈번하게 표현했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세 유아와 4, 5세 유아 간에 주로 차이가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 조절전략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은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기질과 정서 발달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정서 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표 3〉), 유아의 기질 특성과 정서 표현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기질과 정

〈표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 발달

M(SD)

유아의 정서발달		유아의 성	3세(n=24)	4세(n=24)	5세(n=24)	F
정서표현	기쁨	얼굴 표정 억양 비언어적 행동	20.56(8.20) ^a 7.13(4.45) 13.00(7.45) ^a	36.35(8.28) ^b 6.70(4.38) 11.50(6.71) ^a	37.90(12.01) ^b 4.45(4.08) 7.35(6.46) ^b	24.61* 2.31 3.75*
		슬픔	1.13(1.66) .26(.62) .70(1.40)	.90(1.37) .25(.64) .05(.22)	.45(1.39) .05(.22) .20(.62)	1.14 1.01 2.93)
		분노	2.48(3.27) 3.87(4.00) ^a 2.13(3.15)	2.55(2.82) 2.45(2.98) ^a .95(1.50)	1.80(1.91) 5.90(4.51) ^b .90(1.55)	.46 3.98* 2.07
	정서인식	정서 표현 명명하기 정서 표현 지적하기 정서 상황 해석하기 정서 조망 수용능력	6.00(2.84) ^a 7.00(1.35) ^a 10.42(3.02) ^a 12.71(4.60) ^a	7.04(.95) 7.79(.66) ^b 12.21(2.23) ^b 14.42(5.04)	7.29(.81) ^b 7.38(.71) ^b 13.29(1.35) ^c 17.42(5.32) ^b	4.99** 4.09* 13.87*** 5.47**
		정서 인식 합계	36.13(8.49) ^a	41.46(5.46) ^b	46.00(7.79) ^b	12.92***
정서 조절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	11.58(5.24) ^a 8.00(3.71) ^a	15.46(4.29) ^b 5.88(3.54)	19.25(3.49) ^c 3.96(2.91) ^b	18.21*** 8.47**	

*p<.05 **p<.01 ***p<.001 ; ^{abc}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표 3〉 유아의 기질과 정서 발달의 상관관계

유아의 정서발달			유아의 기질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정서표현	기쁨	얼굴 표정	.06	.03	-.07	.01	.07	
		억양	-.02	.02	.01	-.01	.01	
		비언어적 행동	.10	.18	-.06	-.01	.02	
	슬픔	얼굴 표정	-.06	.01	.05	-.19	-.23	
		억양	-.14	-.09	-.21	-.05	-.09	
		비언어적 행동	-.04	-.01	-.08	-.06	-.23	
정서인식	분노	얼굴 표정	.07	-.03	.11	.10	.10	
		억양	.14	.03	-.04	.04	-.02	
		비언어적 행동	-.09	.01	.07	-.19	-.06	
		정서 표현 명명하기	.29*	.20	.09	.02	-.01	
		정서 표현 지적하기	.18	.04	-.14	.01	-.17	
정서 조절	정서 조절	정서 상황 해석하기	.31**	.25*	.17	.13	.27*	
		정서 조망 수용능력	.01	-.03	.06	-.08	.04	
		정서 인식 합계	.19	.11	.10	-.01	.10	
정서 조절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	.20	.05	.13	.05	.25*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	-.13	.04	-.08	-.03	-.25*	

*p<.05 **p<.01

서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이 높을 수록 유아의 정서 표현 명명하기와 정서 상황 해석하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정서 상황 해석하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성이 긍정 적일수록 정서 상황 해석하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과 정서 조절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정서성이 긍정적일수록 유아가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했다.

2.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표 4〉),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분노 억양 표현이 높게 나타났고, 정서 조망 수용능력 및 전반적인 정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슬픔을 비언어적 행동으로 빈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

〈표 4〉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의 상관관계

유아의 정서발달			어머니의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정서반응성
정서표현	기쁨	얼굴 표정	-.10	-.05	.09			
		억양	.16	.19	.16			
		비언어적 행동	.12	.01	.02			
	슬픔	얼굴 표정	.00	.12	-.14			
		억양	.10	.19	-.04			
		비언어적 행동	.14	.29*	-.13			
정서인식	분노	얼굴 표정	.21	-.20	-.04			
		억양	.26*	-.19	.20			
		비언어적 행동	.20	-.05	-.01			
		정서 표현 명명하기	-.17	-.11	.06			
	정서 인식 합계	정서 표현 지적하기	.02	-.13	.04			
		정서 상황 해석하기	-.19	.01	.12			
		정서 조망 수용능력	-.28*	-.04	.14			
정서 조절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		-.11	-.01	.32**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		.11	.02	-.31**			

*p<.05 **p<.01

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 정서성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정서 표현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

먼저, 유아의 기쁨 정서 표현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유아의 연령이 8%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유아의 슬픔 정서 표현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기질 중 정서성이 7%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8%의 설명력이 증가시켰고,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15%의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분노 정서 표현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8%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성, 연령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유아의 정서 인식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

유아의 정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변인들에 대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유아의 연령, 성,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정서 인식에 대해 42%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 연령은 2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졌다. 또한 여기에 성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6%증가하여 33%의 설명력을 가졌고,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은 4%를 첨가하여 설명력이 37%가 되었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5%를 첨가하여 전체 4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과 정서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유아의 정서 조절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

첫째, 유아의 긍정적 정서 조절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7〉), 유아의 연령, 기질, 어머니의 정서 반응성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조절을 4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은 35%의 설명력을 가지며 유아

〈표 5〉 유아의 정서표현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

모형		B	Beta	R	R ²	F
기쁨	1 (상수) 1 유아의 연령	33.17 3.90	.28	.28	.08	5.96*
슬픔	1 (상수) 1 유아의 정서성 기질	6.29 -1.76	-.27	.27	.07	5.36*
	(상수) 2 유아의 정서성 기질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2.14 -1.96 .07	-.30 .28	.38	.15	5.89**
분노	(상수) 1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9.96 .18	.29	.29	.08	6.43*

*p<.05 **p<.01

〈표 6〉 유아의 정서 인식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

모형		B	Beta	R	R ²	F
1	(상수) 유아의 연령	21.44 4.94	.52	.52	.27	26.15***
2	(상수)	15.94				
	유아의 연령 유아의 성	4.94 3.67	.52 .24	.57	.33	16.85***
3	(상수) 유아의 연령 유아의 성 유아의 적응성 기질	5.42 4.77 4.42 3.56	.50 .29 .21	.61	.37	13.34***
	(상수) 유아의 연령 유아의 성 유아의 적응성 기질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23.02 4.51 4.68 4.14 -1.11	.48 .30 .25 .25 -.23		.65	.42
	(상수) 유아의 연령 유아의 성 유아의 적응성 기질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12.12***

***p<.001

〈표 7〉 유아의 정서 조절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

모형		B	Beta	R	R ²	F
긍정적 정서조절	(상수) 1 유아의 연령	.10 3.93		.59	.35	36.95***
(상수) 2 유아의 연령 유아의 정서성 기질	5.90					
	4.33 -3.85	.67 -.23		.63	.39	22.41***
(상수) 3 유아의 연령 유아의 정서성 기질 어머니의 정서반응성	-7.27 4.04 -3.63					
	.62 -.22 .25			.66	.43	17.02***
	.19					
부정적 정서조절	(상수) 1 유아의 연령	14.03 -2.02		.44	.20	17.16***
	(상수) 2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정서반응성	24.44 -1.81 -.20		-.40 .22	.49	.25
						11.15***

***p<.001

의 기질 중 정서성은 설명력을 4% 증가시켜 39%의 설명력을 갖고, 어머니의 정서반응성 역시 설명력을 4% 증가시켜 4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 조절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대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7),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조절을 2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은 20%의 설명력을 가지며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은 설명력을 5% 증가시켜 2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정서성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1. 유아의 개인변인과 정서발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에 따른 유아의 정서 발달의 관계를 만 3, 4, 5세 유아 72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별로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개인변인과 정서 발달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표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기쁨과 분노를 억양 및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빈번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성이 높고 남아의 적극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 사회적 용인의 폭이 넓은 점(Saarni et al., 1998)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남아들은 또래 남아의 분노 정서 표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고, 또래 그룹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이 빈번히 나타나는 것(Crick, Casas, & Mosher, 1997)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성에 따른 정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상황 해석하기 능력과 전반적인 정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Denham과 Couchoud(1990b), 김민화,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2003), 조은진(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남아보다 여아의 정서 인식 수준이 높은 이유는 생득적 차이와 함께, 여아와 남아가 접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아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Saarni, 1989a)으로 생각된다.

유아의 성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황선희(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자기보고식 인터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유아의 반응이

실제의 정서 조절전략보다는 사회적 승인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말했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 표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쁨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번했고, 비언어적 행동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으며, 분노를 억양으로 표현하는 3, 4세 보다 5세가 빈번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서 표현이 많아지고 정서 표현의 강도도 온전하게 변화하며 정서 표현 규칙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Roberts와 Strayer(1996), Gnepp과 Hess(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분노 정서의 경우 억양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3, 4세 보다 5세 유아에게서 빈번한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는 분노 정서가 유발되는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표현보다는 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Ramsey, 1986)이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든 정서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 3세 유아와 4, 5세 유아 간에 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해련, 최보가(2002), Denham et al., (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3, 4, 5세 유아의 전반적인 정서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시기가 유아의 정서 인식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 조절전략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은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의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결과는 황선희(2003), 강기숙, 이경님(2001), Denham et al., (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유아의 자율적인 정서 조절행동은 3, 4세경에 발달하기 시작해서(Kopp, 1989),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증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Aldwin, 1994). 또한 미묘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모으는 것을 학습함으로써(Saarni et al., 1998), 정서 조절전략의 레퍼토리가 점차 넓어진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기질과 정서 표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기질 특성과 정서 표현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이 유치원에서 나타난 유아의 정서 표현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Hestense et al., (199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Hestense et al., (1993)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기질 측정 방법의 어려움과 어머니 보고에 의한 자료가 주관적 지각 요소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관점에 더해 교사의 기질 측정이 더해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유아의 기질과 정서 인식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기질 특성 중 적응성, 활동성, 정서성이 유아의 정서 인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신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하며 정서성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정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화 외 4인(2003), 우수경(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기질 특성이 긍정적 일수록 정서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기질과 정서 조절전략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정서성이 긍정적일수록 유아는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했는데, 이는 박성연(1998), 황선희(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유아의 정서 조절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먼저,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억양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비언어적 행동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련, 최보가(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부모가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할 때 유아는 부정적 정서 표현을 솔직하게 표현하여도 부모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했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많을 때 유아의 슬픔 정서 표현이 빈번했던 이유는,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자주 노출된 유아들은 부모에게 부정적 정서로 더 많이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Cummings, Vogal, Cummings, & El-Sheikh, 1989)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정서 인식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전반적인 정서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서 인식의 하위 영역인 정서 조망 수용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Halberstadt(198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이 통제된 가정에서 자란 개인은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한 인식을 민감하게 발달시키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유아에게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서를 해석할 필요를 느끼지만,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는 어머니의 정서를 해석하기 위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강기숙, 이경님, 2001; 박성은, 박성연, 2001; Eisenberg & Fabes, 1994)와 상반된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포괄적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본 것들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의 관계를 알아본 것으로써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모든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고 어머니의 개인적 정서 표현 특성을 더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반응성과 유아의 정서 표현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표현되는 유아의 정서 표현과 다른 맥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반응성과 유아의 정서 인식 역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민(199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가 특별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특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을 알아봤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표현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반응성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며,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이 통제적일수록 유아는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김순정(2000), 이지선, 정옥분(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Kostlink et al., (2002)은 수용적인 어머니는 유아에게 책임을 맡김으로 유아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도록 하여 유아의 정서 조절 발달을 증진 시키지만 통제적인 어머니는 유아와의 의사소통을 무시하거나 맹목적임 복종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유아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서 정서 조절 발달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3.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 정서성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개인 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는 기쁨 정서 표현을 많이 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고

유아의 정서적 상태가 부정적일수록 유아가 슬픔 정서 표현을 많이 하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분노 정서 표현을 많이 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연령 및 기질과 같은 생득적 요인도 유아의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정서 표현의 모델링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 표현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개인적 정서 표현 성향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낮을수록, 유아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을 잘 할수록 유아의 정서 인식 능력이 높았는데, 이는 김민화 외 4인 (2003), 이해현, 최보가(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질적 특성과 같은 생득적인 정서 기제 외에도 어떠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남아와 여아가 서로 다른 정서 인식을 나타낼 수 있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학습을 계획할 때 유아의 선천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및 기관에서 남녀아가 접하게 되는 정서적 경험의 맥락을 고려하여 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양육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부모 교육 및 교육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아의 정서 조절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어머니 정서성의 영향력을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과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상태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이 수용적일수록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이 통제적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했다. 이는 박성은, 박성연 (2001), 한유진, 유안진(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유아의 연령적 성숙 및 기질과 같은 생득적 요인도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아가 보이는 다양한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아기의 정서 발달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반응성은 유아의 정서 조절전략과 관련됨이 밝혀졌다.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수용적일수록 유아는 긍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통제적일수록 유아는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부모 교육 시에 부모가 유아의 정서 표현

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정서 조절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유아의 정서 인식능력은 3-5세에 계속적으로 발달하지만 주로 3세와 5세 유아 간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4세 이전에 정서 인식 발달을 위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의 정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주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으므로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 교사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정서 발달의 전반적인 경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의 성, 연령, 기질에 따른 정서 발달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교육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숙, 이경님(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4), 115-132.
- 곽혜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김민화,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2003). 영아기 정서 단어의 습득에서 기질과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39-55.
- 김순정(2000).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 이순형(2004). 3세 및 5세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2(4), 29-43.
-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박성은, 박성연(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29-47.
- 서현아, 김소연(2002). 그림책과 관련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2), 1-33.
- 신혜정(200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연숙, 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 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 특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67-81.
- 우수경(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지은(1996).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조은진(1997). 한국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35(5), 219-238.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유미, 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한유진, 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황선희(2003). 유아의 대처능력에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73-205.
- Aldwin, C.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Ashiabi, G. S. (2000). Promoting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2), 79-84.
- Bonello, P. J. (1998).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with ADHD: The contribution of symptom seve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 Casey, R. J. (1993). Children's emotional experience: Relation among experience, self report, and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119-129.
- Cassidy, J., Park, R., Butkoysky, L., & Braungrat, J.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1), 47-59.
- Creasey, G., Ottlinger, K., DeVico, K., Murray, T., Harvey, A., & McInnis, M. H. (1997). Children's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p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negative affect of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7, 39-56.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Crockenberg, S. B. (1985). Toddler's reaction's to maternal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1, 361-373.
- Cummings, E. M., Vogel, D., Cummings, J. S., & El-Sheikh,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1), 238-256.
- Denham, S. A., & Couchoud, E. (1990a). Young preschooler's ability to identify emotion in equivocal situations. *Child Study Journal*, 20(3), 153-170.
- Denham, S. A., & Couchoud, E. (1990b).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Study Journal*, 20(3), 171-182.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3-86.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Preschooler's causal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its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unn, J., & B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Relation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 Development*, 64, 1418-1438.
- Fabes, R., Eisenberg, N., Karbon, M., Carlo, G., Schaller, M., & Miller, P. A. (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 Fox, N. A., & Davidson, R. J. (1988). Pattern of brain electrical activity during facial signs of emotion in 10-month-old infa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30-236.
- Gnepp, J., & Hess, D. L.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2(1), 103-108.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rris, P. L., & Gross, D.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al and apparent emotion. In W. Astington, P. L. Harris, & D. R.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pp. 295-3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stense, L. L., Kontos, S., & Bryan, Y. (1993).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in child care centers varying in qua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295-307.
-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5), 1426-1438.
- Hyson, M. C. (1994).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ontext: The contribution of family, school, and cul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1047-1055.
- Isley, S. L., O'Neil, R., & Parke, R. D. (1996). The relations of parental affect and control behavior to children's classroom acceptance: A concurrent and predictive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 7-23.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Kostlink, M. J., Whiren, A. P., Sorderman, A. K., Stein, L. C., & George, K. (2005). 유아를 위한 사회정서지도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공역). 서울: 교문사. (원서 2002 출판).
- Lindsey, E. W., & Colwell, M. J. (2003).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Links to pretend and physical play. *Child Study Journal*, 33(1), 39-52.
- Ramsey, R. (1986). Possession dispute in preschool classroom. *Child Study Journal*, 16, 173-181.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5(4), 489-493.
- Saarni, C. (1989a).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181-20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arni, C. (1989b).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 (PACES)*. Unpublished Manuscript, Sonoma State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7-301).
- Saarni, C., Mumme, D. L.,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W. Damon., R. M. Lerner., K. Deanna., R. S. Siegler., N. Eisenberg., I. E. Sigel., & A. K. Renninger, (5th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pp. 237-309).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alovey, P., & Sluyter, D. A.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Basic Books.

(2006년 11월 30일 접수, 2007년 1월 19일 채택)